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73호 (2013-03) 발행일 : 2013. 01. 1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둘째자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¹⁾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모일수록,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남편이 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할수록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제공하던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두 자녀, 한 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둘째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와의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Speed Premium")과 같은 둘째자녀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은희 부연구위원

1. 논의 배경 및 목적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1.24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년 후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집단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기점으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²⁾

○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한국사회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피부양 인구가 증가함. 따라서 인구 고령화 또한 한국사회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³⁾

1) 본 연구는 정은희 외(2012).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 및 보완한 내용임

2) 통계청(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3) 이소정·이삼식(2011). 2011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71, pp.59~68.

-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2011년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⁴⁾
 - 현행 저출산 정책은 셋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셋째자녀 출산은 둘째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달하지 못하는 출산수준임
 -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첫째자녀를 계획하거나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임. 대부분이 두자녀 가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나 한 자녀 가정의 둘째자녀 출산으로의 이행하는 비율이 낮음.⁵⁾ 둘째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둘째자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방법

- 둘째자녀 임신/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 조사 1차, 2차, 3차 자료(2007~2011)를 활용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4세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추적하는 패널조사임⁶⁾
 - 1차년도 조사는 2007년 9월~2008년 2월 기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전국 9,084가구 10,013명의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2차년도 조사는 2008년 10월~2009년 6월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2차년도 표본유지율은 가구기준 84.5%, 개인기준 80.8%임⁷⁾
 - 3차년도 조사는 2010년 7월~2011년 2월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7,331가구에 거주하는 8,37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3차년도 조사결과 표본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79.1%, 가구원의 경우 74.6%를 나타냄⁸⁾
-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2007년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에 응답한 한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 중에서 2008년 2차조사와 2010년 3차조사에 모두 응답한 여성 6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기존 문헌에서 출산계획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요인 등을 포함하였음. 추가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교육 의사결정 참여 요인 또한 투입하였음

4) 이상식(2011).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172, pp.5~10.

5) 신윤정(2008). 보육 · 교육비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pp.03~134.

6) 박수미 · 이택면(2008).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이택면 외(2009). 200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2차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이택면 외(2011).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사용된 변수는 출산자녀 수, 연령, 교육, 본인과 남편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건강상태, 부모의 부부관계, 자녀 교육 의사결정, 결혼생활 만족도,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모친과 시모의 생존여부, 가족관련 가치관, 첫 자녀 사교육 비용임

○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와 달리,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적 연구임

- 둘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출산자녀 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 변수는 1차 조사시점에 측정된 변수를 이용하였음. 출산자녀 수는 1차, 2차, 3차 조사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1차 조사 때 한 자녀 가정의 기혼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은 <표 1>에 정리되어 있음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측정방법
출산 자녀수 ⁹⁾	출산한 자녀 수(명)
첫째자녀 출산연령	응답자의 첫째자녀 출산연령(년)
교육	교육연수(년)
가구소득	2007년 상반기 가구소득(만원)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음(1), 건강하지 않음(2), 보통(3), 건강(4), 매우건강(5)
부모의 부부관계	매우 좋지 않음(1), 별로 좋지 않음(2), 보통(3), 대체로 좋음(4), 15세 때 부모의 부부관계가 매우 좋음(5)
결혼생활 만족도	매우 불행하다(1) ~ 결혼생활이 매우 행복하다(7)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별로 만족하지 않음(2), 보통(3), 대체로 만족(4), 남편의 집안 일 분담에 매우 만족(5)
가족관련 가치관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조금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자녀 사교육비	월간 자녀 사교육비용(만원)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했다, 취업안했다
남편 취업여부	취업했다, 취업안했다
자녀교육 의사결정	주된 의사결정자가 본인, 남편, 부부가 함께, 다른가족과 함께
친모 생존여부	생존, 사망
시모 생존여부	생존, 사망

자료: 제1차 여성가족패널조사

- 본 연구는 한자녀 가정 기혼여성이 3차 조사 시점까지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t-검증,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음. 어떠한 요인에서 이러한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분석을 수행하였음

9) 출산자녀 수는 1차, 2차, 3차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3.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간의 특성 비교

- 분석결과, 둘째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 t-검증과 카이제곱 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됨
 -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첫 자녀 출산연령이 0.6세 정도 낮았으며, 교육 연수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두 집단간 가구소득, 성장기 부모의 부부관계 특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건강하며,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차이: t-검증 및 카이제곱 검증 결과

변수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과 비율(n=250)	둘째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평균과 비율(n=398)	t-value
첫 자녀 출산연령(년)	29.4	30.0	-2.01*
교육(년)	14.0	13.6	2.6*
가구소득(만원)	1811.5	1901.3	-0.7
건강상태(1~5)	4.1	3.9	3.1**
부모의 부부관계(1~5)	2.7	2.8	-0.2
결혼생활 만족도(1~7)	5.7	5.3	4.9**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1~5)	3.3	3.2	1.5
가족관련 가치관(1~4)	2.9	2.9	-0.5
자녀 사교육비(만원)	8.2	19.4	-6.0**
			chi-square
본인 취업	19.6%	30.4%	9.3**
남편 취업	93.6%	95.5%	0.2
자녀교육 의사결정			17.1**
본인	34.1%	50.3%	
남편	3.2%	2.5%	
본인+남편	52.2%	41.0%	
다른 가족	1.2%	0.5%	
비해당	9.2%	5.8%	
친모 생존	91.6%	91.0%	0.1
시모 생존	86.8%	84.4%	0.7

주: 둘째자녀의 임신 또는 출산 변수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 2차와 3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나머지 변수는 제1차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였음
 주: † p<.1, * p<.05, ** p<.01

-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와 가족가치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남편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본인 및 남편의 취업여부, 친모와 시모의 생존여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평균 또는 비율의 차이만을 제시한 것임. 각 특성들이 둘째자녀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함
- 어떠한 요인들이 둘째자녀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하였음

4. 둘째자녀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함
 - 이항로짓분석결과, 앞서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분석결과, 여성의 연령, 교육연수, 결혼만족도, 사교육비 지출, 취업여부 및 자녀교육 의사결정이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연령은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즉,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또한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1년 증가할 경우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약 0.9배($e^{-0.07} = 0.93$)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신체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여성의 교육연수는 둘째자녀 임신/출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둘째자녀 임신/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대비되는 결과임.¹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1차 조사 때 추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일수록 둘째자녀를 계획하여 실행에 옮길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0) 이삼식 · 신인철 · 조남훈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결혼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즉, 결혼생활만족도가 1단위 올라갈수록(예를 들면, '매우 불행하다'에서 '다소 불행하다'로 응답이 변화할 경우)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약 1.3배($e^{0.27} = 1.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만족도는 양육에서 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¹¹⁾ 따라서 후속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첫째자녀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조사됨.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달리 표현하면,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만원 증가할 때마다 둘째자녀의 임신/출산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1에 가까운 0.97배 ($e^{-0.03} =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득보다는 첫째자녀에게 지출하는 교육비가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표 3〉 둘째자녀 임신/출산과 관련된 요인: 이항로짓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β)	오즈비(e^{β})	표준오차	유의도
상수	-2.53	0.08	1.21	*
첫 자녀 출산연령(년)	-0.07	0.93	0.02	**
교육(년)	0.18	1.20	0.05	***
가구소득(만원)	0.00	1.00	0.00	
건강상태(1~5)	0.17	1.19	0.12	
부모의 부부관계(1~5)	-0.02	0.98	0.08	
결혼생활 만족도(1~7)	0.27	1.31	0.08	**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1~5)	-0.01	0.99	0.09	
가족관련 가치관(1~4)	0.01	1.01	0.11	
자녀 사교육비(만원)	-0.03	0.97	0.01	***
		1.00		
본인 취업(미취업)	-0.7	0.50	0.2	**
남편 취업(미취업)	0.01	1.01	0.39	
자녀교육 의사결정(본인)		1.00		
남편	0.88	2.41	0.55	†
부부공동	0.44	1.55	0.19	*
다른 가족원	2.03	7.61	1.19	
친모 생존(사망)	-0.17	0.84	0.33	
시모 생존(사망)	0.02	1.02	0.26	

주: 종속변수인 둘째자녀의 임신 또는 출산 변수는 한국어성가족패널조사 2차와 3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1차 한국어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였음
 주: † $p < .1$, * $p < .05$, ** $p < .01$

11) 송영주 · 이주옥 · 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pp.185~206.

- 소득이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용 지불능력의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¹²⁾ 본 연구결과는 소득이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임.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취업모와 전업주부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비롯된 것일 수 있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¹³⁾ 따라서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가구소득의 후속출산에 대한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여성의 취업은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나타남. 즉, 취업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새로 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0.5배($e^{-0.7} = 0.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후속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할 만한 대리양육자를 구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녀교육 의사결정을 여성이 주로 하는 것에 비해, 남편이 주로 하거나 남편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의도가 낮기는 하지만, 자녀교육 의사결정을 남편이 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둘째자녀를 임신/출산을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해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5.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한자녀 여성과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t-검증 및 카이제곱 검증결과, 둘째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건강하고, 결혼만족도가 높고, 첫째자녀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남편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변량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이 둘째자녀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취업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연령과 첫째자녀 사교육비 지출수준 및 취업이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파악됨. 즉,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취업한 여성일수록, 첫째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이 낮아짐. 한편, 결혼만족도는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남편이 주로 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할수록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12) 김하나(2010). 여성의 결혼, 출산자녀 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분석. 제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논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 김종백 · 장영은(2010). 기혼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결혼 및 첫째자녀 출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및 첫째자녀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한자녀 가정에게는 현재의 한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이 매우 크고, 아직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은 커플에게는 첫 출산 자체가 부담일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제공하던 지원정책들을 장기적으로 두자녀, 한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한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둘째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와의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둘째자녀 계획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둘째자녀 계획을 미루게 될 경우 출산간격이 길어지게 되며, 이는 둘째자녀를 계획할 연령을 높이게 하고, 결국 둘째자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과 같은 둘째자녀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피드 프리미엄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첫째자녀를 출산한 당시 받는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둘째자녀 출산시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스피드 프리미엄과 같은 둘째자녀 출산간격을 줄이는 방안은 둘째자녀를 계획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후에 포기하는 여성들의 욕구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이 제도의 주요 수혜자는 취업모임. 가정양육을 하는 여성에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둘째, 양육을 돕는 가족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남편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친인척 양육자를 이용할 경우에도 양육지원금을 제공하여 사적인 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남성의 가사 및 양육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평한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는 여성의 가사 및 양육부담을 완화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남성들의 가사 및 양육분담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함
- 셋째, 사회적으로 양육환경에 유리한 여건들이 성숙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양육지원의 형태가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두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양육규범이 확산되도록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집필자 | 정은희(사회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183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